

하루를 시작하며



권 주 혜
스튜디오126 대표·독립기획자

제주에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곳에 오래 산 사람도, 얼마 전 이주해 온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아직 낯선 존재라는 사실 말이다. 관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자리에서는 누구나 잠재적인 이주민인 셈이다.

스튜디오126에서 열리고 있는 김진아 작가의 개인전 ‘야생의 이주민이 나타났다!?’는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작가는 이주와 정착을 반복했던 삶, 여러 공동체를 오가며 겪은 시간들, 그리고 가족을 돌보고 노동하

우리는 모두 낯선 곳에서 온 사람이다

며 살아온 나날을 오래도록 작업으로 풀어왔다. 이번 전시는 그의 경험을 단순한 장소 이동의 서사로 가두지 않고 이주를 하나의 상태로, 즉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확장한다. 장소가 바뀌면 나를 설명하던 이름과 역할, 관계의 문법도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낯선 환경에 놓인 몸은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을 살피며 자신이 설 자리를 새롭게 더듬어 찾는다.

김진아에게 이러한 감각은 삶의 여러 얼굴과 맞닿아 있다. 부모의 자식으로, 한 아이의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작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저마다 다른 책임과 감각을 요구한다. 출산과 돌봄, 가족의 병, 반복된 이주는 그 역할들이 얼마나 자주 자리를 바꾸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시간이었다. 초기 작업이 공

동체 안에서 반복되는 사건과 감정의 구조를 관찰했다면, 최근 작업은 그 구조를 통과하는 몸과 감각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먼저 ‘상태창’이 관객의 위치를 비춘다. 이어지는 ‘채집보관소’에는 씨앗과 작물, 작업복과 드로잉처럼 한 존재가 낯선 환경을 통과하며 익혀 온 감각의 흔적들이 놓인다.

관객은 자신만의 생존 기술과 오늘 떠오른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이 기록은 전시가 끝난 뒤 ‘생존기술도감’으로 다시 엮인다. 메인 공간에서는 대화와 흥얼거림, 몸속 소리와 숲과 바다의 소리, 일상의 소음이 한데 뒤섞여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작가가 오래 붙들여 온 ‘관절’이라는 개념도 눈여겨볼 만하다. 관절은 서로 다른 자리를 이어 움직임을

을 만들어내는 지점이다. 가족과 개인, 노동과 돌봄, 이동과 정착 사이의 긴장 역시 그 틈에서 드러난다. 작가가 제시한 ‘Lv.0’은 익숙한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을 다시 살피는 출발점을 뜻한다.

전시명에서 ‘야생’ 역시 자연과 문명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규칙과 관계가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환경, 그 안에서 주변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모으며 자신의 방식을 새롭게 익혀가는 과정을 뜻한다.

우리가 지닌 생존 기술이란 결국 낯선 자리에서 조금씩 익혀 온 관계의 방법일지 모른다.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서로를 새롭게 감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감각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낯선 얼굴들 앞에서 조용히 이어진다.

사설

제주의료원 ‘돈 먹는 하마’ 전략, 관리도 부실

제주의료원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고금리 차입을 통해 겨우 버티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30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의료원은 2023년 81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 95억원, 2025년에는 102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 당기순손실도 최근 3년간 매년 50억~6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한 외부 차입은 올해 3월 기준 42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30억원 가량을 추가로 차입해 계획이다. 제주의료원은 이미 202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2025년에는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인력과 급여 관리도 부실하

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된 인력을 목적과 다르게 배치하고 예산 및 회계업무와 지출업무 분리 운영해 하에도 담당자 1명이 전담했다. 또 퇴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별도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고 일반 운영 예산으로 지급했다. 결국 운영자금 보전을 위해 고금리로 42억원을 차입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제주의료원은 필수·응급의료와 취약계층 진료로 전담하고 있어서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능망이처럼 불어나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다.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의료원은 협의를 통해 채무 상환계획과 재정안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무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더 촘촘히 세워야

제주지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임차인 보호대책을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임차인에게 전세금은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는 올해 1~7월 131건, 252억9400만원에 이른다. 2023년 한 해 보증사고가 111건, 196억4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해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90%(청년층 10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며칠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은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가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공동으로 미리 가려내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모든 전세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정부가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것보다 사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어서다.

열린마당

갈등협의체 만들고, 중복되자 다시 예규까지



강 효 민
제2공항 자연피해 주민대표

위성곤 도지사가 “제2공항 자연으로 11년간 고통받아 온 성산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을 때 성산 주민들은 감동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또 다른 절차를 낳으며 제2공항 추진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시작은 사회협약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였다. 도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됐고, 두 협의체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겼다.

도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어 기존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까지 통합·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구성·운영 주체 등이 상위 규정에 정해져 있어 별도 예규를 통한 통합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체된다면 피해는 성산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환경검증도 도민 의견수렴도 반대하지 않는다. 환경은 철저히 검증하고 법이 정한 주민 의견수렴도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 다만 철저한 검증이 불필요한 절차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갈등조정협의회 추진을 재검토하고, 법과 상위 규정이 정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해녀, 로마에서 세계와 만나다

‘국제여성농민의 해’ 참여

○…제주해녀협회 소속 제주해녀 6명이 7일 이탈리아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열린 수산위원회(COFI) 행사에 참여해 제주해녀의 음식문화와 공동체 가치를 국제사회에 홍보.

제주 해녀들은 직접 만든 성게 요리를 비롯해 탄자니아의 해조류 요리, 도미니카의 어류 요리 등 3개 국가의 음식이 선보이며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이어오면서 실천해 온 수산자원 보호 노력과 여성공동체 문화, 제주지역의 특색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제주해녀문화가 지닌 지속가능한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 오소병기자

제주시-남원시 직거래 협력

○…제주시와 전북 남원시가 농산물 직거래 협력을 통해 상생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

지난 2월 설 명절을 맞아 제주시는 만감류 7.8t 4700여 만원 상당을 남원시 지역에 공급했고 8일에는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본점에서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을 비롯해 양 지역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대표 농산물인 캬벌포도 직거래 판촉 행사를 개최.

행사에 참석한 제주시 채종우 부시장은 “제주시와 남원시가 우수 농산물을 매개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일회성 판촉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농협, 유통조직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직거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위영석기자

무연분묘 개장 공고(1차)

본 분묘는 「경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가수
○ 분묘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020, 1020-1, 1020-2 (지목: 전)
○ 가 수 : 1기

2. 개장 사유 : 묘지정리 및 관리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안치(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자공원 봉안당) ☎064)710-6628
○ 안치(봉안)기간 : 안치(봉안)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확정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시 한림읍 상명북1길 33-11 최치룡 (☎ 010-2574-4813)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복지과 ☎ 064)728-2562, 2568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명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물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6년 9월 9일

위 공고인 : 토지주 최 차 롱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칼라강판
조립식건물
녹슬고
비새는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 나 장 의 사
616-08-85402